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특징 연구

홍 은 영 -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ОСОБЕННОСТИ ОБУЧЕНИЯ ИДИОМАТИЧЕСКИХ СОЧЕТАНИ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https://doi.org/10.5281/zenodo.10199250>

Хон Ын Ёнг - Магистрант 1 курса,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Низами

서론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의 풍부한 어휘 능력을 학습하는 것과 동시에 유창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관용표현이 필수 문항으로 제시될 만큼 관용표현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관용표현은 축자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이를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관용표현은 이해 및 사용에 있어서 사회언어학적인 측면과 화용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 및 맥락,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관용 표현은 한국의 문화가 투영된 문화 어휘로서 관용표현의 의미적 특성은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휘 교육이자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관용표현을 익힘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소양 또한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용표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2. 한국어 관용표현의 특징

2.1. 관용표현의 개념

관용표현은 관용어, 관용어구, 관용구, 관용표현, 속어, 익은말, 익힘말 등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되어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습관적으로 쓰는 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어 관용 표현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관용 표현의 특성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것, 축자적 의미를 벗어난 제 3의 의미, 언중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권경일, 2005; 문금현, 1999; 심재기, 1986). 관용표현 정의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관용표현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말이고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본뜻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나 추측할 수 없는 새로운 뜻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2.2. 관용표현의 특징

관용표현의 구조는 일반적인 언어와 달리 형태가 비교적 고정불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변형이 허용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관용표현의 어순 변화는 어색하며 관용성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관용표현의 대치는 제약된 것을 보인다. 또한 도치시키려면 관용표현의 전체를 다 이동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관용표현은 오래전부터 옛날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생성하며 속어적인 특징을 가진 것들이 많아서 대부분 대우 표현과도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어휘·의미론적 특징 측면에서 보면 어휘론에서는 구어적 관용표현의 비속성 · 은어성 · 유행어성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해 보일 수 있다. 구어적 관용표현의 구성 어휘에 비속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특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어휘 중에서 ‘머리’에 대한 비속어가 가장 두드러져 ‘꼴, 꼭지, 뚜껍, 머리통’으로 사용되었으며, ‘모습’ 대신 ‘꼴’이 쓰이었다. 반면에 문어적 관용표현에서는 유행어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로 가질 수 있지만 비속어성화 은어성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어적 관용표현은 사회, 경제, 정치 등을 각 분야로 전문성을 지니며 일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3. 한국어 관용표현과 한국문화의 관계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교육해야만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 Moran 은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또한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다. 이들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언어이든 문화이든 그 중요성을 잃지 않으면서 둘을 떼어낼 수는 없다. 특수한 도구적 학습을 제외하면, 제 2 언어 습득은 또한 제 2 문화의 습득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이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사회·문화적 정보와 지식을 잘 이해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 황정아(2008)는 관용표현과 관련된 세부 문화 요소는 ‘수량, 인물, 신체, 의식주, 동식물, 자연·물질, 여가 활동, 시간·공간 (장소·방위), 생활용품, 행위·동작’ 10 가지 요소를 분류하여 그 중에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표현의 비율이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에는 의식주, 생활용품, 자연·물질과 관련된 관용 표현의 비율은 순서대로 뒤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문화 분류는 연구자들의 관점 등이 바탕이 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위의 10 가지 요소 중 의식주 문화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정리하였다.

2.4. 의식주 문화와 관련된 관용표현

한국인의 의생활을 반영된 관용표현 중 ‘허리띠를 졸라매다’의 표현은 평소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전쟁을 치른 우리 조상들은 배고픔을 겪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어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더 견디고자 했다. 즉, ‘허리띠를 졸라매다’는 ‘배고픔을 참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오늘날에는 ‘검소한 생활을 하다’ 혹은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은 지리적·기후적 특징에 따라서 옛날부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생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쌀이 귀중하고 쌀로 만드는 떡은 대표적 음식이다. 떡은 명절이나 제사 등 중요한 날에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음식들에 비해 떡에 대한 관용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 외에 쌀로 만든 죽이나 밥 도 관용표현으로 사람들의 습관을 표현한다. 따라서 음식과 관련된 관용 표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음식 문화와 관련된 관용표현>

음식	관용표현
죽	식은 죽 먹기
밥	밥 먹듯 하다
떡	그림의 떡 떡이 되다 누워서 떡 먹기 떡국을 먹다

한국인에게 떡은 좋은 의미로 대부분 ‘풍요·행운·감사’로 표현한다. 떡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떡을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림의 떡’이라는 관용표현은 그림에 있는 떡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로 말한다. ‘누워서 떡 먹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같은 뜻으로 ‘식은 죽 먹기’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다’라는 관용표현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다’라는 의미로 한국의 음식 문화의 상징적인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식습관과 옛날부터 내려온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또는 옛날부터 한국인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편이다. 물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음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한국 사람들도 식습관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밥을 챙겨 먹는다. 이러한 생활의 모습을 사람의 행동에 대해 표현할 때 ‘밥 먹듯 하다’라는 관용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일을 자주 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용표현을 보면 한국인의 특유한 음식 문화를 알게 되며 학습자에게 한국 생활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문화 배경과 같이 설명하면 한국어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외국어를 공부할 때 학습의 목표는 원어민처럼 의사소통을 원활 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배우는 것으로 의미와 중요성을 해석하였다. 언어 속에는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 형식이 많지만 그 중에는 관용표현이 있다. 관용표현은 두, 세 어절로 문장을 만들게 되지만 어휘의 뜻과 달리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강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 배경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다.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단순한 암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용표현에 담긴 문화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게 되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화 요소는 그 나라의 역사, 풍습, 가치관, 세계관, 사상, 정서 및 생활 습 관 등을 잘 이해하면 그 나라의 사회,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할 때 다양성과 독창성이 잘 발휘될 것이다.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문화 요소를 파악해야 하고 관용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때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하면 학습자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원구(2014), 한국문화 이해도가 한국 관용표현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효진(2010),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드영타이링(2021), 베트남 베트남 내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김민정(2011),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순(2014),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중·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